

Ἡ ὁδοὺς τοῦ Ἰμφοῦρθε 박사Æ 창세기Æ 세션 Ἐἶς 아브라함의 여정

© 2024 케네스 매튜스 및 테드 힐데브란트

11과에서는 아브라함의 여행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션 초반에 내가 그의 실제 물리적 여행이 어떻게 그의 영적 여행에 대한 은유를 반영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육체적 여행을 추적해 보면, 그것은 부분적으로 그의 영적 최고치와 영적 최저치와도 일치할 것입니다.

12장, 13장, 14장에 기록된 여정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12장 1절부터 3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구절을 여러 번 언급했지만 우리의 초점 연구를 그 구절에 실제로 고정시키지 않았으며 오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제가 이에 대해 논의하겠지만 11장 27절에는 이것이 데라의 족보 또는 계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다음 데라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며, 특히 나중에 17장에서 아브라함으로 명명될 아브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읽으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람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롯에 관한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그 족장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그 손자 롯을 데려갔으니 롯이 곧 아브람의 조카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는 계속해서 아브람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항목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아브람을 부르게 됩니다.

여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고대 바빌론 남쪽, 이라크 남부 지역인 갈대아 우르에서 여행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데라와 데라 가문의 지휘를 받아 터키 남동쪽에 있는 하란으로 갔습니다.

우르에서 시리아 국경과 매우 가까운 하란까지의 여행 거리는 약 600마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위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언약의 약속을 이해하기 위한 맥락입니다. 우리가 하란에서 고대 가나안 중심부인 가나안까지의 여행 거리는 약 400마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아브람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12장 1절에서 시작하여 "네 본토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 이전에 나는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의 정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언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그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는 하나님의 언어가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 곧 약속의 외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그리하면 그가 그에게 갈 곳을 보이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12장 1절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럼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너희 나라를 육지에 맡기라"는 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는 그에게 땅을 제공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중요한 지도 외에는 다른 지도가 없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 주실 지도입니다.

그리고 상실, 그의 삶의 백스톱에서 멀어지는 움직임, 편안함을 주목하십시오. 첫째, 그는 자신이 알고 있고 알게 된 땅인 하란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그의 일족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네 아버지의 집. 그것은 티라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동심원은 더 넓은 것이 땅이고, 다음이 씨족이고, 세 번째가 그에게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그의 직계 가족입니다. 그러면 2절을 보겠습니다. 일련의 I will이 있는데, 나는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그분이 이 일을 수행하실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약속이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이 응답한다는 사실 외에는 이 미지의 땅을 여행함으로써 믿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물론 이는 인구를 전제로 합니다.

그다지 유망해 보이지는 않는군요, 그렇죠? 그의 아내는 불임이고 자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땅과 아직 보지 못한 자손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창세기에서 축복은 자손과 번영 또는 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실제 물질적 부를 말하는 반면,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것은 신약성경 11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땅, 백성, 그리고 번영입니다. 번영의 차원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를 가지려면 그 국가는 자손을 통해 확장하고 성장해야 하며, 국민 국가를 지탱할 만큼 충분한 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장, 아니 오히려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이 다른 종족 그룹과 교차하는 다양한 방식이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다른 종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그들도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위해 약속하신 축복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문구를 계속하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약속 부분에 대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 아브라함으로부터 밖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 자신을 모든 족속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갈때기가 될 것입니다. 3절에서는 모든 민족이 이 축복에 들어가는 방식이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유일한 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먼저 복을 주리라.

보십시오, 그것이 아브라함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을 편애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너희를 저주하면 나도 저주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저주는 마법 주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저주는 축복의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 고대 환경에서 당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적대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있습니다. 땅 위의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10장의 국가표와 바벨탑에 이어집니다.

아시다시피 바벨은 연합하여 모인 민족이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고 자신들의 이름과 평판을 높이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흩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함께 모여 그들의 자존심과 기술 발전을 옹호하고 바벨탑과

바빌론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은 그 약속이 땅에 영토와 영토와 땅의 통치를 확장하고 행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퍼져야 축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말을 혼동합니다. 그들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언어의 혼란으로 인해 민족들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독제는 아브라함을 불러 이스라엘 민족을 창설하게 하심으로써 한 나라,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약속의 목적과 구원의 축복을 펼치실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여행과 그의 여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4절은 쉽게 간과될 수 있는 정말 인상적인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떠났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히브리어 성경 12장 1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거기에는 떠나라,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강한 믿음을 보였음을 즉각적으로 보여줍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나서 그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아브람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는 앞으로 25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또한 중요한 세부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약속의 씨는 없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원래의 약속과 축복을 우회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것입니다.

이제 아브람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가 갔던 여러 장소에 대한 설명이 6절부터 시작됩니다. 세겜이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5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것이 그의 패턴이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과 신뢰,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 공급하실 것이라는 표시, 하나님이 이 적대적인 지역에서 그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그가 베델로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의 벤엘, 아이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0마일 정도 떨어진 벤엘과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12장에 와서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그가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이유이다. 이집트는 고대 근동 지역의 곡창지대였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법을 통해 더욱 예측 가능한 방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기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막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들은 9절에 언급된 남방을 뜻하는 네게브 지역을 통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황야 지역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이집트로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 음식을 사곤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는 비가 자주 내리고, 비도 적게 내리므로 기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병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 땅에서 자립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10절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13장 1절은 새로운 에피소드를 시작하고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애굽에서 네겍으로 올라갔고 그의 행적을 되돌아갈 것입니다. 애굽 사건에서 아브람의 여행을 볼 때 우리는 주목할 만한 유사점을 발견할 것인데, 이는 12명의 아버지인 야곱의 가족 시대에도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임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바로의 집에서 막강한 지위에 오르고,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약 400년 후에 야곱의 후손들이 바로의 무거운 손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내고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 후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떠나기를 원하며 그들에게 금과 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같은 일 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떠날 때, 그는 파라오에 의해 힘을 얻고 부유해질 것입니다. 내 요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조상에 관한 이러한 초기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이야기에서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과 그들을 구출하시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음, 여기서 작용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남자의 아내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나 남자가 남의 아내를 불법적으로 취하지 말라는 도덕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남편을 살해하고 그 여자는 결혼하여 아내를 삼을 수 있도록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장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그의 누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동일한 전략을 다시 저지르는 곳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그랄에서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에게 말하면서 이것이 그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관, 이것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따라서 12장과 20장에는 이 두 가지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생명에 대한 순수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사라가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그 지역의 지배 군주(이 경우에는 바로) 역할을 했습니다. 글썄요, 파라는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에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자신의 하렘에 추가합니다. 이제 하렘이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많은 아내와 많은 성 파트너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우리는 종종 이것이 주로 성적인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쾌락주의의 한 형태이지만 후궁에 모여 후궁의 여인들을 통해 많은 후손을 낳아 왕가의 명성과 세력을 쌓으려는 것이었다. 또한 우리는 통치 인사들 측에서 중요한 딸들과 다른 왕들, 다른 군주들, 다른 부유한 귀족들의 궁정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려는 욕망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즉시 떠오르는 위협은 이 하렘에 있는 사라가 임신을 하면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타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임을 알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선택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너머에 대한 사랑은 아브라함이 모든 종족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이자 증인이 될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만민이 복을 받으러 오는 것을 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큰 질병을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정상적인 성관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후궁에 있던 사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물론, 왕조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은 파라오와 이집트 국가 전체의 마음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속임수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20장에 이르면, 이와 병행되는 이야기에서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꿈을 꾸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사라를 그의 하렘으로 데려가라고 미리 경고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집트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반응은 그를 추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람에게서 사라를 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는 금전적인 부와 소와 같은 다른 것들로 그를 부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추방되었습니다.

이제 그토록 강하게 신앙을 시작하고 예배에 그토록 강하게 시작하여 우르와 하란의 과거 다신교와 고대 근동 가나안과 이집트의 특징이었던 모든 다신교에 그토록 강력히 저항했던 아브라함에 대해 얼마나 슬픈 해설이 되었습니까? 그는 그 모든 것에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가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글쎄요, 분명히 이것은 아브라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하나님에 대한 저주이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으로 넘어갑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동행하여 그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을 풍부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바로 그가 파라오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롯도 큰 부자가 되지만 삼촌과 조카 관계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자가 받는 풍요로운 번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권리와 늘어나는 많은 양 떼와 소 떼를 먹이는 권리를 둘러싸고 계속되는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7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보충 정보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1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을 언급합니까? 글쎄, 그것은 적대적인 환경이고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해 아브라함, 아브라함에 의한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잠재적인 위협이 있을 때 가족이 분열되어 내부 갈등을 겪는 것은 자멸적인 일입니다 .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급될 수많은 종족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우리가 알고 있고 일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요점은 그들이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아브람은 큰 자비와 은혜의 행동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의 이집트 경험에서 뭔가를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동생 롯에게 말하면서, 다투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원하는 토지 구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롯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툼에 대한 아브라함의 은혜로운 반응과 대조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롯이 둘러보니 요단강 온 평야가 물이 넘쳐나고 여호와와 동산 같고 소알 맞은편 애굽 땅 같았더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악과 사악함,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자세한 내용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홍수를 가져온 사건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평지의 도시들에 불을 비처럼 내리시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평지의 도시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다섯 개의 도시들이었는데, 그 중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가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동산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공급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집트 자체가 얼마나 큰 번영과 식량 공급의 땅이었는데도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소돔에서 일어날 일과 롯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환경에서 살기로 선택한 것에 대한 언급은 롯이 자신의 이익과 번영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독자로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합니다. 탐욕을 말하는 사도 바울을 읽어보면 골로새서 3장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생명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남자. 그는 옛 사람의 사악함을 묘사하면서 탐욕을 언급하고 그것을 우상 숭배로 규정합니다.

롯은 평야 도시의 엄청난 부와 번영에 어느 정도 빠져들게 될 매우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상 숭배로 밝혀졌습니다. 아이들은 누구인가? 롯 자신.

그의 우상 숭배는 전적으로 이기적이고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상이나 거짓 신들이 아니라 축복과 보호를 약속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유산을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공포 중의 공포입니다. 여기서 롯은 자기 확장의 기회를 포착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아, 나는 내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다시 한번 너에게 확신시키고 싶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도보로 여행하여 이 땅이 궁극적으로 약속된 대로 그의 땅이 될 것이며 그의 직계 후손이 될 것임을 간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인구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의 먼지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그 땅을 종횡으로 두루 다니며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십니다. 이것은 이 도보 여행 덕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땅에 대한 소유권을 상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나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워짐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점진적으로 재확인하실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영적 훈련

학교에 다니면서 자신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더 깊이, 더 헌신적으로 두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족 안에 분리가 있음을 봅니다. 분리는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사상이자 모티브이다.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오경 전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과 땅, 물과 땅 사이에 분리와 분리가 일어나는 창조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가인과 그의 동생 셋 사이에 별거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가인 족속과 셋 족속이 있습니다 . 불행하게도 그들은 서로 섞여서 가장 사악한 세대를 낳습니다.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은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세 아들의 분리와 그들의 유산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씨족과 가문인 데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도 그와 동행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리가 일어납니다. 5장과 11장의 족보가 의로운 혈통을 구별하기 위해 고안된 것처럼, 3장 15절에서 하와에게 약속하신 구원자의 약속이 나올 혈통은 그 후손이 싸워서 그 후손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뱀의. 우리는 이러한 분리로 인해 구원자를 생산할 혈통이 좁아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창세기를 통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과 그 다음 약속의 아들 이삭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에서와 야곱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 종으로 팔려 형들과 한동안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생존을 위해 12개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토라의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친척, 즉 그들의 친척에게서 나온 종족 집단이 그들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마엘에는 아랍 부족이 있습니다. 에서와 함께 에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롯의 두 아들 외에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속의 혈통과 약속이

이루어질 가족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 여러 곳을 지나갈 때 미리 경고와 지시를 받았는데,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와 다신교와 사악함과 성적 타락을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땅에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룩함을 유지하고 순결함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헌신을 유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13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분리에 대해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국제적인 인물이 됩니다.

이는 두 왕에 관한 이야기가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서부를 습격한 동부 왕들의 연합이 있었고, 서부의 그 연합에는 소돔 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부 연합은 남부 또는 오히려 서부 연합을 압도하고 서부 연합 사람들의 현상금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종들과 그의 재산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의 중요성 때문에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 시작해서 12절까지 이어집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을 때부터 그의 소유물까지 약탈해갔습니다.

13절에서는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민족을 구별합니다. 이 장에서는 인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국가 및 도시 국가와 관련된 다양한 종족 그룹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역할, 국제 무대에서 동등한 참가자로서 소돔 왕과의 관계에서 그의 역할로 인해 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점점 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풍요롭게 하신 목적을 위해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어라는 단어에 관해서 우리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두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에벨 11장의 셈 족보 에 기록된 조상, 에벨, 에벨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히브리어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Ivri, Eber, Ivri에 매우 가까운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 조상 에벨과의 연관성 때문에 이브리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건너다라는 뜻의 어근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계를 넘나드는 여행자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아브라함이 자신을 나그네, 이주자라고 밝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용법은 인종이 아니라 창세기의 비이스라엘인 비히브리인, 비히브리인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셉을

히브리인으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사무엘서에서도 사회적 용도로 사용되는 용례입니다.

따라서 이는 행정 당국 외부에 있는 사람들, 도망자, 무법자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 아이디어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측면에서도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점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동지애 집단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인종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마므레라는 이름의 아모리 사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일행을 모아서 동방 왕들의 연합을 쫓아 경주하여 북쪽 끝 도시 단에서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재물을 되찾았고 그의 친척 롯과 그의 재물, 그리고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찾아왔다고 합니다.

14절에 단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실 댄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야곱의 아들 중 하나인데 야곱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읽는 사람들이 다양한 위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자가 장소 이름을 업데이트했다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왕들의 이야기에는 소돔 왕 외에 예루살렘 왕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덱이 살렘 왕, 즉 예루살렘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 곧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람을 축복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12장에서 그가 아브람을 축복한 내용과 직접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아브람이 멜기세덱을 축복할 기회가 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두고 한 이 축복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과 땅의 창조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을 다시 찬송할지로다

이제 아브람이 그에게 주는 축복은 멜기세덱 곧 멜기세덱의 10분의 1입니다. 이것은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 숭배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도록 장막 제사장들에게 자원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임을 쉽게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왕이요 제사장임을 인식하여 같은 일을 한 아브람에 대해 예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은 아브람과 같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가나안 사람이었을 것이며 아브라함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교주의, 성적 변태, 우상 숭배, 만연한 사악함 속에서도 아브람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마음을 갖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을 만난 것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마음. 자,

이것이 God, El, EL, El-yon, ELYON의 일반적인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인 야훼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22절에서는 그분을 여호와로 밝히십니다.

아브람이 소돔 왕을 만났을 때, 아브람은 맹세를 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손을 들었습니다. 보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시라 내가 주의 것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맹세하였느니라

이제 그는 멜기세덱에게서 떡과 포도주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교 소돔이 닥치자 그는 저항했습니다. 그는 소돔 왕의 말을 받아들이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런가요? 그는 23절에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즉, 그는 소돔이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하게 하였노라 말하게 하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아브람은 그를 부유하게 하신 분은 그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받아들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전리품과 은총을 거절합니다. 이제 아브람과 함께 갔던 연합군에 이름을 올린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마땅히 자기 몫을 받을 수 있지만 아브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신비한 실패를 포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함께 모이면 15장, 16장, 17장에서 언약 개념의 설명과 발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5장과 17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소개하기 전에 잠시 멈춰 이 인물, 매우 신비로운 인물인 멜기세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시편 110편에 언급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약성서의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맥락에서 그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우리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